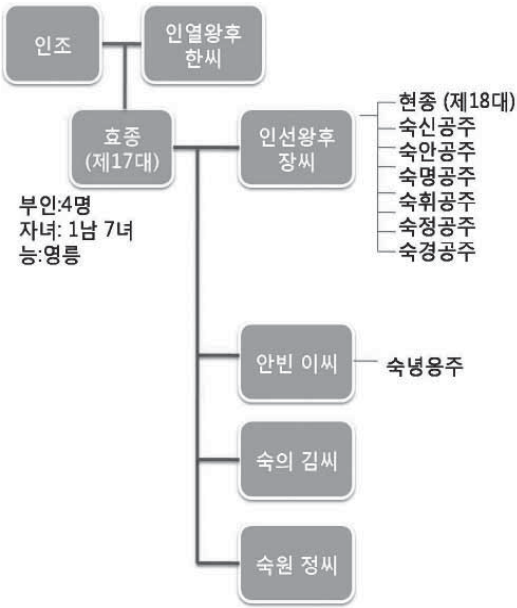


◆머느리권씨 열전 23-3

문충공 선원 김상용의 貞夫人 권씨 (추밀공파 23世, 권개權愷의 딸)

효종의 인선왕후의 외조모, 현종의 외증조모



효종의 가계도. 인조가 소헌세자와 머느리 강빈을 죽게하고, 그 권력에 집착하니, 둘째 봉림대군이 효종이 되니 권씨부인의 딸은 대군 부인 부부인(정1품)에서 자동으로 왕비.그 외아들 현종은 유일하게 외국(中原)에서 태어난 조선 국왕. 15년 재위 기간 중 상복만 입다가 세월보내고 경신대기근(간병기 흉년)으로 나라는 엉망, 게다가 상복 문제로 싸움질.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의 외조모, 현종의 외증조모인 권씨

그리고 적3녀 김이순이 바로 효종의 국구(國舅) 신평부원군 장유의 부인으로, 인선왕후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봉림대군과 결혼, 청나라로 끌려가고 거기서 후일 현종이 되는 장남을 낳고, 뒤에 효종이 왕이되니 자동으로 왕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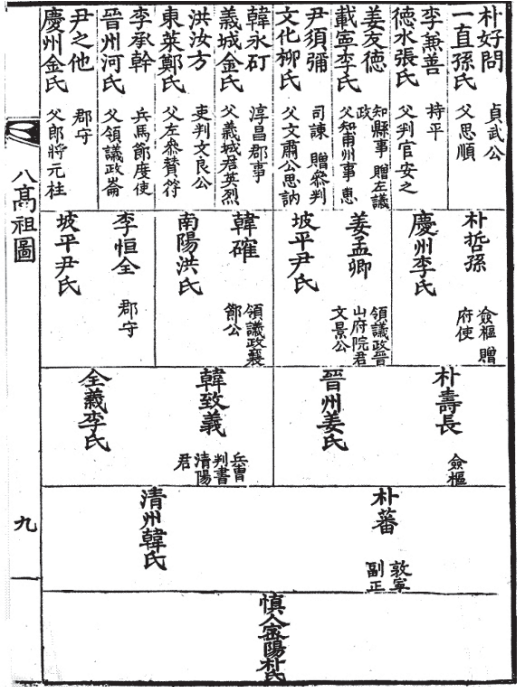
여기서 인선왕후의 부친 장유는 덕수 장씨로서 고려 원간섭기 제국대장공주(루빌라이칸의 딸, 충렬왕비)의 호종으로 온 회회인(지금 중국 위그르 지방, 중앙아시아)으로 장순룡(張舜龍) 이다. 외모는 서역인을 닮았고 성격도 그러할 것이다. 이후 고려에 귀화하여 개성의 덕수현의 지명을 따서 덕수 장씨가 되고 금자광록대부, 문하찬성사를 지내고 덕수부원군에 봉해졌다.

현종은 단종과 함께 세손-세자-왕의 코스를 거친 보기 드문 적장자이다. 물론 아버지 효종의 2차 컴플렉스(소헌세자 폐비, 그 부인 강빈 사사), 그리고 김상용은 사위가 강빈의 친오빠여서 여러모로 당시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현종은 유일하게 조선왕조에서 장기간 집권한 적장자이고 15년정도 재위해서 자신의 아들 숙종외에는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조선은 차차왕손설(鄭道傳)에 의해 장자가 왕이 된 경우 단명, 폭군등 문제가 있었다.

첫째 문종은 35년간 세자 자리에 있다가 3년만에 사망, 단종은 진정한 적장자이나 찬탈 당한 후 피살



팔도조도, 현대인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따져야 한다. 족보 자체가 선대로 갈수록 신빙성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적다. 자손이 적고, 대를 잇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이제 이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되고, 연산군은 모처럼 적장자이나 폐비 윤씨문제 등 광인으로 전락 폐위, 인종 8개월 만에 사망, 이후로 경종 장희빈 아들 4년, 정조는 손자로 건너 뛰고, 순조도 그 위 적장자 사망, 순종 마지막 왕은 말하나 마나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 현종 치세에 거센 명성왕후 김씨(구 안동 김)의 위세에 눌렸다고는 하지만 온순한 성격으로 외할머니 김이순을 닮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 안동권문의 피가 12% 정도 조선왕의 유전자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단종의 50%에 못 미치지만 지금 8고조도(세종8고조도 참조)로 남녀 구분없는 새로운 개념의 족보 시대에 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경기도기념물 제99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6번지 소재. 정부인 안동권씨와 합함, 사진 네이버



김상용의 순절의 진실여부는 그때도 문제가 불거졌으나, 애초에 강화유수(군수) 장신(張紳)의 최초보고는 사고사(?), ‘담배 피우려다 실화(?)’, 그러나 김상용은 비흡연자! 이 ‘장신’이 ‘장유’(효종의 장인, 즉 권씨부인의 사위, 선인왕후 아버지의) 동생인데. 김경정과 같이 병권을 두고 싸우다가 둘다 도망질, 애초 자기 집터 바치고 벼슬 시작, 인조반정 가담 기화주의등등 문제 많은 보고서, 김경정과 장신은 둘다 처형당했다.

사진 강화군청

김상용 권씨묘소

김상용 선생 묘소는 선영(先塋)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와 합장되어 있다. 봉분의 호석(護石)은 최근에 설치한 것이다. 봉분 앞에 묘표와 석상, 망주석, 문인석이 설치되어 있다. 묘표는 운수방부(雲首方趺; 구름이 조각된 비석 머리와 네모난 비석 받침) 형태로 운수에는 구름 사이로 일출(日出)하는 모습을 앞뒤로 새겼다. 묘표는 건립연대는 없으나 양식상 17세기 전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묘역 아래의 신도비는 1647년에 건립된 것으로 이수방부(麟首方趺; 용이 조각된 비석 머리와 네모난 비석 받침) 형태이다. 이 신도비는 선생의 막내동생인 김상보(金尚竒)이 홍성부사(洪城府使) 때 제작해서 보낸 작품이다. 비문은 선생의 동생인 김상현이 짓고, 조카인 김광현(金光炫)이 전자(篆字)를 쓰고, 조카사위인 류시정(柳時定, 본명은 柳時英)이 글씨를 썼다.

이렇듯 이제 고려(高麗)가 있었기에 고구려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역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코리아(KOREA, 高麗亞)도 여기서 유래한다. 그 창업의 전환점이 삼태사의 분투에 의한 병산전투의 승리에 기인한다. 따라서 병산전투지 성역화, 삼태사 기념사업등에 있어서 안동김문, 안동장문과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김상용, 권순장의 순사, 같은 사당에 배향, 또 그 부인 정부인 권씨의 자손이 왕실의 적통을 낳은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삼태사 후손의 단결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족보의 AI화, 아카이브 구축, 족보의 세계문화유산화에 상호 협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및 수정신고 등

II.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 신고방식 구분

개인사업소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 신고 유형에는 장부신고방식과 추계신고방식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장부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직전연도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의 판단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할 것을 제안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만이 정확한 사업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복식부기 의무자

가.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로 다름)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큰 사업자

나. 장부 작성 의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해야 함

다. 제출서류: ①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40호서식) ②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자산표(별지40호서식) ③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지74호 서식) ④그 밖의 조정명세서(조정계산서,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등)

라. 신고 및 납부기한: 익년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함

마. 무신고 시 가산세:산출세율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미비 시 추계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될 수 있음

3. 간편장부대상자

가. 적용대상: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나. 장부작성의무: 간단한 수익, 비용만 기록한 간편장부

다. 제출서류: 간편장부 기초자료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①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40호 서식) ②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74호서식) ③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지74호 서식) ④신고 및 납부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와 동일함

가. 적용대상:간편장부에 의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보다 간소한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나. 신고유형: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다. 장부의 작성: 별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없다

라. 제출서류: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40호서식)

마. 신고 및 납부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와 동일

5. 요약: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장 엄격한 장부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가지며, 수입 규모가 큰 사업자에 해당되며,

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간단한 장부 작성만 요구됩니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중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고하며, 장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무신고 시에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최초의 경전(最初의 經典)

지구상의 수 많은 인류 종족 중에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스런 종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국가를 세우면 수 천 년을 지령했다. 중국 역사의 한족(漢族)들의 국가는 길어야 몇 백 년이었음에 비하면 가히 경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후대에 이들의 민족열이 퇴색될 즈음에 마지막 왕조가 세운 역사는 오백 년이었다.

이 독특한 민족의 얼은 경전(經典)에 있었다. 그들은 국가를 세우면 반드시 왕이 백성에게 경전을 전해왔다. 왕마다 다른 경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최초의 나라에서 최초의 왕이 세운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하였기에 이 민족의 DNA에는 근 일만 년을 들어온 경전의 내용이 고스란히 심어져 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름하여 그들을 한민족(韓民族)이라 부른다. 오늘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들은 정작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이 세웠고 통치하였던 그 나라가 인류 최초의 국가였으며 인류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경전에서 나왔음에도 말이다.

우리 민족의 얼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 일제에 의하여 침탈에 의한 우리들의 고귀한 민족사는 찢겨진 깃발이 되어 버렸고, 해방 후 그 시절 활개치던 친일파 잔당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맡으면서 위대한 한민족의 얼은 그 색깔이 바래져서 역사의 뒤안길을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 할 길이 없다.

아! 대한이며, 언제쯤이면 우리들 지나라는 후손들에게 그 동방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우리들 조상들의 위업을 이야기로 가르칠 날이 오겠는가?

현해탄 넘어 하이에나 같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없는 역사를 조작해 내고 있고, 두만강 너머 쟁주이(鐵州)들은 동북공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날조하고 있질 않는가!

아래를 참고하자!

국가	왕	경전
1. 한국(韓國)	한인(桓因)	천부경
2. 배달국(配達國)	한웅(桓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제정
3. 조선(古朝鮮)	한검(檀君)	단군팔조교

역(易)

역술가나 유불선 공히 주역을 말하지만, 그 출처의 근원도 모른 채, 뜻도 모르면서 그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꾀다 붙이는 이만 가득하니 이 어찌 혹 세무민(惑世誑民)이 아니라 할 것인가?

지나국(중국)은 복희(伏羲) 그들의 전설적인 삼황(三皇)의 한 분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 복희는 우리 배달 국의 5대 태의 한웅 천제의 막내 아들로서 변방 서역을 다스리며 궤(軌)를 전한 인물로서 당연히 한국(韓國)인 이었다.

또한 후일 한족(한족) 우사공이 태자 부루에게 삼육구배(三六九拜)하고 오행치수법을 받아가서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렸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건너간 역(易)이 세월이 흘러 점차 그 근본이 잊혀지고 점괘나 보는 사술(詐術)로 변질 되어 이 땅으로 다시 건너 오게 되었던 것이다.

역(易)에 의존하여 종교가 선후천(先後天)을 말하고 술사(術士)들이 사람의 운명이나 명당자리나 논하지만 역(易)의 근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후천은 때(時間)가 아니며 음양오행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도(하늘, 정신), 낙서(당, 육체)가 선후천이며 오행은 그것을 보는 눈(지혜)이다.

여기서 역(易)을 다 논할 수 없으니 화자(膾炙)된 오행(五行)이나 간단히 살펴보자.

음양오행(陰陽五行)이란 낱말만 회자 되었을 뿐, 내용은 세간에 알려지질 않았다.

하도(하늘, 정신, 상생원리)				
木生仁	火生禮	土生信	金生義	水生智

낙서(땅, 육체, 상극원리)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조림·토목	치산·치수	관개·수로	제철·금속	건축·종이

득도(得道)

득도(得道), 도통(道通), 참으로 거창한 말이다. 뉘라서 감히 이런 주제를 논할 수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많은 현자(賢者)와 철인(哲人)들이 도(道)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버린 체로 일생을 바치질 않았던가?

거대하고 영원한, 아아 어쩌면 불가능한 명제로 일반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한,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역(逆)으로 도통여반장(道通如反掌)이라는 말도 있다.

도를 통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세상사람들은 말하기를 ‘말도 안 되는 소

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는 도(道)를 우리 선조들의 손에 꼭 쥐여 주셨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도(道)를 가르치셨다.

도(道)가 살아있을 때는 한국(韓國), 배달국(配達國), 고조선(古朝鮮), 고구려(高句麗)까지는 저 중원을 포함한 대륙을 다스렸으나, 이 도(道)가 머리 속에서 잊혀지고 국력이 쇠락해서 지금은 그 영토가 한반도, 그것도 반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의 얼을 되찾아보자!

인간은 정신이 5%, 육신이 45%로 되어 있건만, 어찌하여 그 얼(정신, 도)은 다 잊어버린 체로 눈앞의 물질(육신)의 세계에만 눈이 멀어져 이득(利得)에만 급급하여 생(生)에 위기를 자초하여 스스로 병들어 죽음으로 한 발 앞서서 다가가는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원통하다!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님께 제사 드리던 참성단(桓星壇)은 그 이름을 중국에서 흘러온 도교가 차지하고, 한웅천황을 모시던 사당은 대웅전이란 이름으로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가 쓰고 있으며, 한민족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하나님을 기독교는 전도라는 목적으로 그 이름을 빌려 쓰고 있으니 이 아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가위, 바위, 보!

이것이 한민족의 손에 쥐여주신 단군의 도(道)다! 이 가위, 바위, 보가 곧 천지인(天地人)이요, 바로 삼신(三神)이다.

삼신의 화현(化顯)이 한인, 한웅, 단군이시다.

일석삼극(一析三極)이요, 회삼귀일(回三歸一)이요, 원. 방. 각(圓. 方. 角)이다.

이는 천부경(天符經)의 말씀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숨(用)

돈이나 물질 그 자체에는 선악이 따로 존재하질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잘 쓰면 활인(活人)하고, 잘못 쓰면 살인(殺人)하게 되니, 살리는 일이나, 아니면 죽이는 일이나는 쓰는 자의 판단과 행위에 맡길 일이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에 또 바르게 쓰려면 상당한 수양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성인이나 경전(經典)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성현들은 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와 적당한 때에 말씀을 하여 이치(理致)를 알려 주고, 활인(活人)하지만, 범부(凡夫), 즉 보통사람들은 말로 인하여 많은 실수를 하고 상대방에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다반사이다.

말하는 입과 혀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다스리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도 혀도 내 것이니, 필요한 곳에 또한 필요한 때에 씹으므로 해서, 비록 성현은 되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가감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말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곧 번뇌의 공장이다. 격정하고, 근심하며, 두렵고, 불안하고, 울고, 웃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의 총체가 108가지라고 불교의 가르침은 이를 일러서 108번뇌라 한다.

‘말’과 ‘말씀’이 있듯이 마음 또한 ‘마음과 마음 씹’이 있다.

마음이 내 것임이 분명하다면, 발심(發心)하는 데로 날뛰다가 파국에 이르지 말고 필요할 때에 일으켜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마음 씹’이다.

마음이 무차별 발동하여 통제하지 못하면 곧 일의 그르침을 가져오게 되고, 폐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성취는 날로 멀어져 갈 뿐이다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 성인은 아닐지라도 바른 마음을 쓰는 자는 되리라!